

YONSEI STUDIO-X (Architectural Design Studio 4&6)

21세기 공공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이퍼로컬을 위한 주거의 변화

Re-conquer the space



* 바르셀로나 superbloc

Unit Master: 이 소 정

이소정 // 이화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과와 University of Pennsylvania 건축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네덜란드의 OMA에서 다양한 건축 및 도시 계획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매스터디스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뒤, 박상준 소장과 함께 OBBA를 설립하였다. OBBA는 영역을 한정 짓지 않고, 공동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건축작업 뿐만 아니라 설치작업 등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며 끊임없이 새로운 사고와 시도를 감행하는 활동하는 건축&디자인 그룹이다.

독립 후 첫 프로젝트인 'Beyond the Screen'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젊은건축가상을 수상하였고, 이외에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서울시건축상 등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Architectural Record에서 선정하는 Design Vanguard(세계를 리드하는 10팀의 건축가)에 선정된 바 있다.

Unit Agenda:

도시에는 그 시대의 삶에 관한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다. 지난 시대에 우리는 급격한 산업화와 근대화 흐름에 부응하며 신속한 경제발전과 도시의 성장에 초점을 두어왔고, 이에 우리의 도시 곳곳은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효율화라는 모토 하에 속도 높은 공간으로 숨가쁘게 개조되어 왔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는 훨씬 복잡해지게 되면서, 우리는 가치관은 여전히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리가 되는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변해가게 되었다. 이러한 가치의 변화를 표상하듯, 자동차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우리 도시의 곳곳은 조금씩 시민들에게 돌아오기 시작하였으며 그렇게 우리는 보행환경, 삶의 질, 속도에 관한 질문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주거지 내에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과 시도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 계획에서 공원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계획에서는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을 분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단지 내 가로에 다양한 녹지와 편의시설들을 계획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왔다. 펜스로 구분 지어지는 그들만의 도시를 구축하며 또 다른 문제점들과 비판거리를 양산하는 아파트 단지이지만, 적어도 단지 내부 주거 및 보행환경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40% 이상이 거주하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중간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방치되고 있다. 자동차가 희박했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었던 기성 시가지의 생활가로는, 토지이용의 극대화라는 목적 하에 빠르게 다세대, 다가구로 변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가구 및 주차 밀도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건축물 자체가 극복할 수 없는 법적, 도시구조의 한계 속에 머무르며 중간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2022년 서울시는 재개발 요건이 부합하지 못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하여 정비하는 사업(서울시 개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정책을 발표하였다. 외면되어 왔던 중간주거지역에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주거환경,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한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본 스튜디오에서는, 중간주거 지역을 세밀히 관찰하고 이들이 처해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중간주거 지역 내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며,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중간주거 계획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Unit Schedule:

스튜디오는 크게 3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Step1. Re-view

첫번째는 **RE-VIEW** 챕터로써, 서울 도시구조 중에서도 중간주거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조사 및 분석하는 단계이다. 도로의 위계 없음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 기존의 주차시스템으로 인한 도시환경 및 가로 비활성화 문제들, 그리고 생활 SOC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외면 받는 가로환경 및 공공장소 비활성화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아가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까지 고민해보는 단계이다. 그룹과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Step2. Re-set

두번째는 **RE-SET** 챕터이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역사와 사례들을 조사해보고, 그 중에서도 공동주거에서 시도되는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수립한 모아타운의 정책에 의거하나, 단순히 하나의 소규모 블록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모아타운이 점진적으로 확장 되었을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거시적 관점으로 도시를 바라보고자 한다. 중간주거지역내의 적정 밀도와 공공공간의 개입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이를 통해 설계의 기본개념을 수립해보고자 한다.

Step3. Re-born (Re-born in new era)

마지막은 **RE-BORN** 챕터이다. Step 2에서 도출된 기본개념에 의거해서 본격적인 건축설계 작업이 진행된다. 새롭게 개선된 중간주거지역 내에서 본질적으로 새롭게 계획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중간주거를 제안해보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결과물 >

학생들은 다양한 건축적 표현 방법 (hand drawing, computer drawing, 3d modeling, physical model making, graphic works using Adobe programs; Photoshop, Illustrator and so on)을 통한 결과물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설계의도와 이를 구현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기법들(설계설명서, PPT, VIDEO)을 통해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게 된다. (**제출물은 다이어그램, 도면집, 모형사진, 3D 모형 등 최종 원본 파일 및 프리젠테이션 파일 PPT, PDF, VIDEO등으로 될 예정입니다.)

< 평가 >

- 수업계획서에 올려진 방식에 의거합니다. (출석 10%, 참여도 10%, mid review (step1&2) 30%, final review (step3) 50%)
- 본 수업은 절대평가 방식을 따릅니다.
- 본 수업은 3,4학년이 함께 구성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각 학년별로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타 >

- 본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스튜디오 수업중, 주차별 진행과 관련있는 워크샵 혹은 특강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 학생들을 위해 일부 예산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출력비 및 재료구입이 일부 지원 예정)

Unit 지원자들에게 알림

총 5년 과정으로 구성되는 건축학과 커리큘럼은, 1-2학년은 건축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배우고 기본적인 문장을 구성해보고 짧은 글짓기를 해보는 것이라면, 3,4학년은 좀더 고차원적인 글쓰기를 해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어진 주제하에 자신만의 관점과 논리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글을 다듬어 나가 하나의 완결된 글로 만들어 보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하나의 완결된 글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각들은 비단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닌 활자로 페이지상에 쏟아져 낸 수많은 습작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본 스튜디오에서는 매 수업시간마다 일정수준 이상의 작업량을 요구한다. 자신만의 생각을 머릿속에서만 혹은 구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건축적 소통방식 (스케치, 도면, 모형 등)등을 통해서 표현된 실존하는 무엇으로만 소통하도록 한다.

Academic training 과 practical training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정적으로 즐겁고 많은 것을 배워나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